

## 자존 없는 경쟁

이 은 진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아침에 학교에 나오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1919년 3월 1일에 발표된 독립선언서의 첫번째 구절이었다. “**捰等은 茲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 邑을 宣言하노라.**” 왜 이 구절이 떠올랐을까? 분명 현재의 내 처지와 관련되어서 떠올랐을 것이다. 독립, 자주가 되지 않은 나의 처지를 연상하였을까? 분명 프랑스의 1789년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선언 1조인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가 생각난 것은 아니었다. 즉, 나의 천부적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마다 대학평가, 교육개방, 학과 통폐합,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연봉제 등등 새로운 용어가 남발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단지 널리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

의 정책당국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제도화되어, 교수들을 움아매는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바람, 그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러한 용어의 사용과, 이데올로기성 용어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제도들이 과연 사회에서 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를 평가하고 싶을 뿐이다.

교수가 자존을 유지한다는 것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 각자가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여 자존을 지키지 못하였다거나 아니면 교수들이 앞서가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여 그리 되었으니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수들의 자존을 지키면서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다라는 것이

다. 제도적인 장치는 교수들이 합의하는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해야 가능하다. 예를 들면 교수들도 자신들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에의 숙련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면서 헌신하고 싶다는 것이다. 단순히 교수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니 한국사회에서 특권층이고, 그러므로 다른 한국사람과 마찬가지로 봉급을 내리든지 아니면 고용보장의 기회를 줄임으로써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경쟁에 나설 것으로 가정한다. 물론 교수들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고용안정이 낮거나 아니면 낮은 봉급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봉급을 낮추거나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이 곧 교수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아니면 교수들을 분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립대학에서는 아니다. 즉, 자본주의적인 경쟁이 가능한 곳에서는 그런 대로 경쟁을 도입하면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경쟁의 기본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곳에서는 오히려 경쟁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휩쓸려서 도입하지만도 못한 결과를 빚는다. 상지대, 대구대, 인천대, 조선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대학을 소유한 재단이 경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지 경쟁을 통하여 대학의 목표를 달성할 생각이 없다면 경쟁은 차라리 없느니 못하다. 아니면 대학재단이 사유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경쟁력 강화는 재단의 사유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좋은 구실이 될

뿐이다. 서구의 대학체도를 도입하려거든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부터 도입해야지 그렇지 않는 한, 모든 제도는 다만 사유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교훈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련에 걸맞은 대우란 단순히 봉급을 올리거나 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가족을 거느린 사람으로서 생애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회적으로 상응하는 존경심을 받으면서, 자신이 가진 숙련이 자신의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도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다. 마치 한 교수가 낯두리를 늘어 놓는 듯한 인상을 줄지 몰라도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의 자존을 지키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수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존경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사람들은 다만 그 이외에는 존경을 표시하고 싶은 대상은 아니다. 그런 곳에서 학문은 살아 남지 못하고 오히려 높은 지위, 권력, 인기만 살아남는다. 여기에 교수들의 자학, 자괴, 비굴이 시작된다.

평생을 직장에서 성실히 살아간 교수가 존경받는 사회, 책상머리에 앉아 있다 머리를 책상에 대고 조용히 숨을 거둔 노교수, 나치가 침입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연구실에 틀어 박혀 연구에 몰두한 학자가 있

는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 대다수 교수들의 마음이라고 나는 짐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학자가 인기나 권력에 옮겨다니며 으스대는 풍토, 연구실에 있는 교수에게 이념적인 낙인으로 대하는 사회, 학문에서의 숙련을 증진시키기보다는 바깥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학문풍토에서는 어떠한 제도도 다만 그것을 위해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는 학문도 경쟁력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의 평가는 학문사회의 존경받을 만한 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학문사회의 내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경제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하거나 대중사회적인 인기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사실 이미 대학사회 아니면 학문사회에서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잘 알고 있듯이 이미 대학은 사유화된 재단이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가지면서 경영하고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미 생산성 논쟁, 개방화, 연봉제, 대학평가, 재단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위기, 대중사회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대학을 내버려 두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학은 이미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사회학자의 수와 맞먹는 수의 학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참담하다. 그저 외국이론을 빨리 번역하는 일에 모든 학자들이 동

원되어 있다. 무엇인가 화끈한 것을 찾아, 아니면 당장의 성과에 급급해 정신없이 뛰어 다니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숙련을 높일 생각은 않고 학문 외적인 곳에 눈을 이리 저리 굴리고 있다. 이러한 자학, 자괴, 비굴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던 말인가?

대학에 들어 오면 많은 이들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 때 편안함이란 단지 나태하고 해이해진 분위기를 느낀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사회와는 다른 논리가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는 곳, 모두가 바라고 있으나 바깥 현실의 제약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대학이 진리의 전당인가? 다만 과학적인 진실을 밝히는 곳인가? 세속적인 진실, 법률적인 진실(실체적 진실), 정치적인 진실(권력 싸움에 동원되는 이데올로기), 경제적인 진실(누구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 대중적인 진실(인기)이 아닌 인류의 연대감에 기반한 眞理를 추구하는 곳이 대학이라는 곳이라고 인정한다면 이에 걸맞은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리의 추구를 제약하는 대학 내부의 정치적인 요인은 항상 외부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 강고한 사유재산권의 주장, 공공복리를 폄하하는 이기적인 경쟁체제의 선호, 공동선을 부정하는 시장의 논리 등과 연계되어 있다. 오히려 세속의 사람들은 대학의 교수들이 바깥의 논리에 더 매몰되어 최소한의 건전한 자본주의 논

리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 사실이다. 문제는 대학교수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더 큰 대학의 제도와 바깥 사회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다. 대학의 행정당국자, 교육부의 관료들, 언론의 경영자와 편집자들, 정당의 정치인들, 이들에게 대학은 다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우 풍족한 자원에 불과할 따름이다. 아니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할 뿐이다.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읽어보고 맑스레닌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정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며, 재판부도 동료 교수들이나 학자들의 견해보다는 신원을 밝히지 않는 공안연구소 연구원의 견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학문활동은 법률에 의하여 소모될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수들은 그들이 보기에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할 정도의 처신 밖에 행해 오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교수의 존재는 하나의 소모품일 뿐이며, 대학의 목표인 인류 또는 민족 공동체를 위한 진리는 다른 곳에서 수입하면 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직업인들의 꿈 중의 하나가 여전히 대학교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

나 대학교수되는 것도 사실이다. 영화배우 하다가도, 씨름 하다가도,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들도, 교육상담직원들도, 우리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 교사도 잘만 하면 대학교수가 된다. 그러면 그들의 꿈은 이룬 것이 된다. 대학교수가 '장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교수라는 것을, 오랜 세월 숙련을 쌓고 쌓아야만 가능한 것이 교수라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하는 한, 교수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좋은 신랑감의 하나로서 자리잡고, 또 그 폐해는 여전히 대학이 바깥 사회와 같이 이리 저리 흔들리면서 위태로운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

---

이은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거쳐 현재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산업사회학의 연구동향』 등이 있고, “한국에서 주변부 포디즘의 증세가 나타나는가?”, “일제하 노동운동은 민족독립운동인가?”, “토지공개념과 국가의 계급성”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